



야옹이와 멍멍이

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려워요. 친구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, 용기를 내서 한번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야옹이와 멍멍이 편지지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.



풀칠하는 곳

* 접는 선 -----
* 자르는 선 _____



풀칠하는 곳